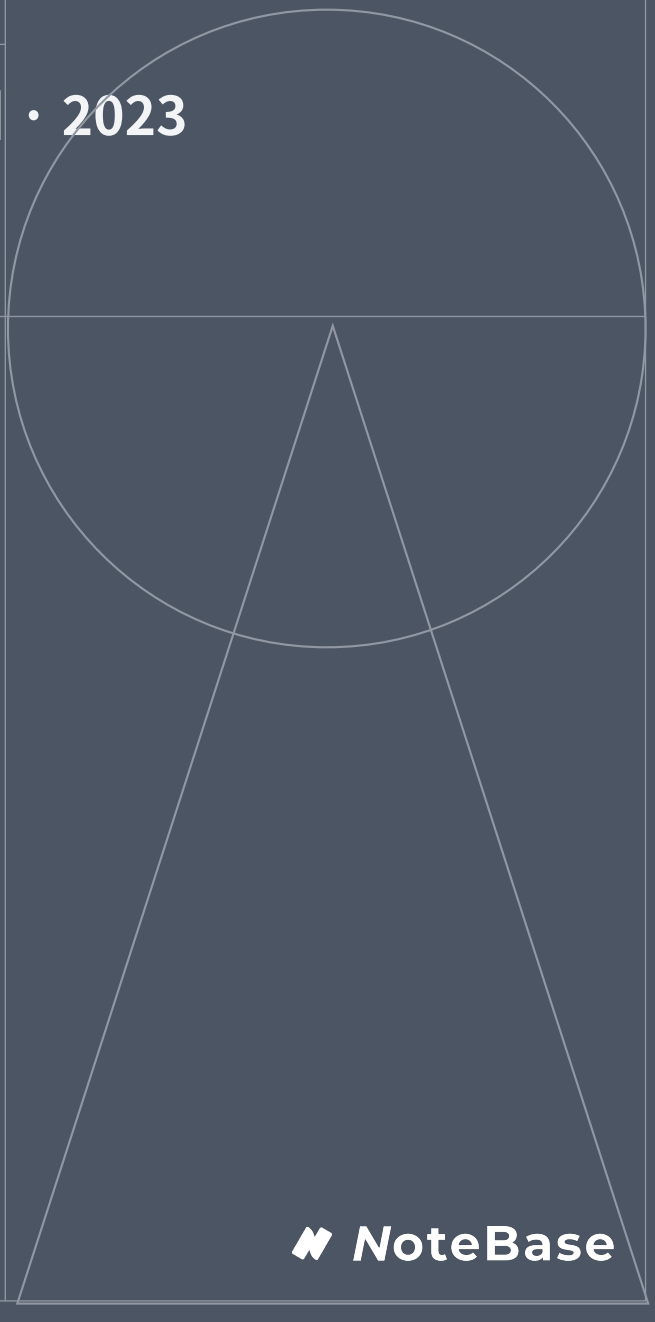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3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3

공무원/지역인재/9급 · 국어 · 2023

1. 비평하는 글쓰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논거를 활용할 때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서론－본론－결론의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꾸어 표현한다.

③ 시사 현안 비평문을 쓸 경우에는 문제 상황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한다.

④ 자신의 의도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표현과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여 글을 완성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비평하는 글쓰기에서 논거의 기준, 필자의 관점, 표현 방식이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비평하는 글은 대상이나 문제를 분석·평가하고, 타당한 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설득력 있게 드러내는 글이다. 글의 각 단계는 기능이 다르더라도 필자의 중심 관점은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논거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므로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기준으로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서론－본론－결론의 단계마다 필자의 관점을 바꾸어'이다. 글의 단계마다 역할과 전개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필자의 중심 관점은 글 전체에서 일관되게 유지하여 표현해야 한다.
③ O — 시사 현안을 비평할 때에는 문제 상황을 분석한 뒤 그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비평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하고, 간결하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글의 전달력과 설득력을 높이는 적절한 방법이다.

오답 포인트

②는 서론·본론·결론의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의 관점도 단계마다 바뀌어야 한다'는 말로 바꾼 함정이다. 글의 구성 방식은 달라져도 중심 관점은 일관되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평문 관련 선지는 ‘논거는 타당하고 믿을 만한가’, ‘필자의 관점은 분명하고 일관적인가’, ‘표현은 간결하고 명확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계마다 관점을 바꾼다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암기 포인트

비평문은 타당한 논거, 일관된 관점, 명확한 표현이 핵심이다.

NoteBase

2. 표준 발음으로 적절한 것은?

① 그는 흙과[흘꽈] 함께 살고자 했다.

② 어제는 교통 체증[체쯩]이 심각했다.

③ 한국 사람의 인사말[인산말]에는 정겨움이 담겨 있다.

④ 물질적 재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을 생산력[생산녁]이라고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받침의 대표음, 된소리되기, 불필요한 된소리와 'ㄴ' 첨가 여부를 적용하여 표준 발음을 판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겹받침 'ㄺ'은 자음 앞에서 대체로 [ㄱ]으로 발음하며, 뒤의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바뀔 수 있다. 한자어라고 해서 예사소리를 임의로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으며, 합성어에서도 'ㄴ' 첨가의 조건이 없으면 원래 소리대로 발음한다. '생산력'은 'ㄴ' 뒤의 'ㄹ'이 [ㄴ]으로 바뀌어 [생산녁]으로 발음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흙과'의 'ㄺ'은 자음 'ㄱ' 앞에서 [ㄱ]으로 발음되고 뒤의 'ㄱ'은 된소리가 되므로 [흑꽈]가 맞다. 틀린 발음 [흘꽈] → [흑꽈]이다.
② X — '체증'의 '증'은 된소리로 바뀔 조건이 없으므로 [체증]으로 발음한다. 틀린 발음 [체쯩] → [체증]이다.
③ X — '인사말'에는 'ㄴ'을 첨가할 조건이 없으므로 [인사말]로 발음한다. 틀린 발음 [인산말] → [인사말]이다.
④ O — '생산력'은 'ㄴ' 뒤의 'ㄹ'이 [ㄴ]으로 발음되는 유음의 비음화가 일어나 [생산녁]이 된다.

오답 포인트

표기된 받침을 그대로 [ㄹ]로 읽거나, 익숙하게 들리는 된소리와 'ㄴ' 첨가를 표준 발음으로 오인하기 쉽다. 특히 ③의 [인산말]처럼 합성어라는 이유만으로 'ㄴ'을 덧붙이면 안 되고, ④에서는 'ㄴ+ㄹ'의 실제 음운 변동을 적용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받침의 대표음을 정한 뒤, 뒤 음절과의 관계에서 된소리되기·비음화·'ㄴ' 첨가가 일어나는 조건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평소의 발음 느낌보다 각 음운 변동의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흙과는 [흑꽈], 체증은 [체증], 인사말은 [인사말], 생산력은 [생산녁]이다.

NoteBase

3. 밑줄 친 어미의 문맥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겠더구나.

① 추측　② 진행
③ 회상　④ 주체 높임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하셨겠더구나'를 이루는 선어말 어미와 종결 어미가 문맥에서 나타내는 의미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하셨겠더구나'는 '하- + -시- + -었- + -겠- + -더- + -구나'로 분석된다. '-시-'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었-'은 과거 또는 완료, '-겠-'은 추측, '-더-'는 과거에 직접 알게 된 사실의 회상을 나타낸다. '-구나'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깨달음이나 감탄을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겠-'은 '할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을 것이다'라는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② X — 틀린 표현은 '진행'이다. 이 문장에는 동작이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고 있다'나 높임 표현인 '-고 계시다'가 없다. 올바르게는 '-었-'이 과거·완료, '-겠-'이 추측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한다.
③ O — '-더-'는 화자가 과거에 직접 알게 된 사실을 돌이켜 말하는 회상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적절하다.
④ O — '-시-'는 문장의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이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하셨겠더구나'가 여러 어미가 연달아 결합한 형태라는 점이 함정이다. 특히 과거의 일을 말한다는 사실을 동작의 '진행'과 혼동하면 ②를 놓치기 쉽다. 과거·완료와 진행은 서로 다른 문법 의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어미를 형태소 단위로 나누어 각각의 기능을 대응시킨다. '-시-'는 주체 높임, '-었-'은 과거·완료, '-겠-'은 추측, '-더-'는 회상으로 판단하고, 진행은 일반적으로 '-고 있다'나 '-고 계시다'가 있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시-높임, 었-과거·완료, 겠-추측, 더-회상'으로 구별한다. 진행은 '-고 있다/계시다'이다.

NoteBase

4.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찔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① 자연과 인간의 갈등을 시적 상징물로 구체화한다.
② 시구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③ 자연에서의 전원적 삶을 소망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④ '들찔레'나 '그믐달' 같은 시어로 화자의 바람과 지향을 표현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반복되는 시구와 자연물의 상징적 의미를 바탕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시에서 자연은 인간과 대립하는 대상이 아니라 화자에게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을 일러 주는 존재이다. '산이 날 에워싸고'와 '살아라 한다'의 반복은 운율을 형성하며, 화자가 자연 속 삶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흐름을 만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시에는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산은 화자를 에워싸고 자연물처럼 살아가라고 말하는 존재이므로, 틀린 표현은 '자연과 인간의 갈등'이다. 올바르게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시적 상징물로 구체화한다고 해야 한다.
② O — '산이 날 에워싸고'와 '살아라 한다' 같은 시구를 거듭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씨 뿌리고 밭을 갈며 자연물처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차례로 펼친다.
③ O — 화자는 산자락에 집을 모아 자녀를 낳고 호박을 심으며 살아가는 모습을 제시한다. 이는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소박한 전원적 삶에 대한 소망을 드러낸다.
④ O — '들찔레처럼', '쑥대밭처럼', '그믐달처럼' 살아가라는 표현은 자연물의 삶을 본받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과 자연 친화적 삶의 지향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산이 날 에워싸고'라는 표현을 산이 인간을 억압하거나 인간과 대립하는 장면으로 해석하기 쉽다. 그러나 산이 제시하는 말은 화자가 바라는 삶의 내용이며, 작품의 중심은 갈등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진 삶에 대한 소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자연물이 인간에게 말을 거는 시에서는 그 말이 화자의 소망과 일치하는지, 인간을 위협하는지부터 구분한다. 자연물의 말과 화자의 지향이 일치하면 갈등보다 교감·조화·동일시의 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복은 운율과 시상 전개를 만들고, 이 시의 자연물은 갈등의 상대가 아니라 화자가 닮고 싶은 삶의 표상이다.

NoteBase

5. 다음 조건에 따라 토론 논제를 수정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쟁점이 하나여야 한다.
> ○ 긍정과 부정의 입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 찬성 측의 입장을 담아 완결된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한다.
> ○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운 부정확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①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
→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안 된다.

② 교내에서 무분별한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
→ 교내에서 과도한 간식 소비를 금지해야 한다.

③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 청소년의 여가 활동으로 적절한 운동을 제안해 보자.

④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과 교복 착용에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토론 논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이해하고, 고친 논제가 그 조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토론 논제는 하나의 쟁점만 담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분명히 갈리며, 찬성 측의 입장을 담은 완결된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한다. 또한 '적절한', '무분별한', '과도한'처럼 판단 범위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을 피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개방하면 안 된다'는 부정문이므로 찬성 측의 입장을 담은 긍정문으로 진술해야 한다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주말에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한다.'와 같이 진술한다.

② X
'무분별한'을 '과도한'으로 바꾸어도 어느 정도가 과도한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부정확한 표현이 그대로 남는다. 올바르게는 '교내에서 쉬는 시간 외의 간식 섭취를 금지해야 한다.'처럼 금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③ X
'제안해 보자'는 함께 행동하자는 청유문이므로 찬반 토론이 가능한 완결된 긍정 명제가 아니다. 또한 '적절한 운동'도 범위가 모호하다. 올바르게는 '학교는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해 방과 후 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처럼 구체적인 긍정문으로 진술한다.

④ O
원래 논제는 '휴대폰 사용'과 '교복 착용'이라는 두 쟁점을 함께 담고 있다. 수정한 논제는 '학생들의 휴대폰 사용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로 쟁점을 하나로 한정하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문장의 내용이 자연스러운지만 보면 ①~③도 수정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①은 긍정문 조건, ②는 표현의 명확성, ③은 완결된 긍정 명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만 두 쟁점을 하나로 줄여 원래의 문제를 정확히 바로잡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수정 전후의 논제를 비교하면서 쟁점이 하나인지, 찬반이 분명한지, 완결된 긍정문인지, 표현의 범위가 구체적인지를 차례로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토론 논제의 핵심 조건은 '한 쟁점, 분명한 찬반, 완결된 긍정문, 명확한 표현'이다.

NoteBase

6. 다음 글에서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도파민은 쾌락, 욕망, 동기 부여, 감정, 운동 조절 등에 영향을 미치는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다. 스웨덴 아르비드 칼손 박사는 도파민이 과다하면 조현병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기는 인간의 두뇌 현상을 의학적으로 규명한 바 있다. 도파민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과 자극을 추구하게 하여 각종 중독과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어떤 행동을 할 때 일정한 감각적 자극을 받으면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 행동이 습관화된다. 도파민에 휩싸인 뇌가 그 자극에 적응하면,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게 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소셜미디어나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파민 단식에 돌입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을 노린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한 도파민 단식 방법은 가능한 한 모든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물론 음악 감상이나 격렬한 운동 등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가벼운 독서와 간단한 스트레칭 그리고 실내 산책 등으로 소일하는 것이다.

① 도파민이 과다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겠군.
② 도파민 단식 방법으로 격렬한 운동을 중단할 수도 있겠군.
③ 뇌가 감각적 자극에 적응하면 더 강력한 쾌락을 추구하겠군.
④ 디지털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이 드러날 수도 있겠군.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명시된 도파민의 양과 증상, 자극 적응 과정, 도파민 단식 방법을 바탕으로 각 선지의 추론이 타당한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시문은 도파민이 과다하면 조현병이 발생하고,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긴다고 설명한다. 또한 같은 자극에 뇌가 적응하면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하며, 도파민 단식은 감각적 자극을 가능한 한 줄이는 방법이라고 밝힌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도파민이 과다하면 우울증에 시달릴 수 있다'는 부분이 틀렸다. 제시문에 따르면 도파민 과다는 조현병과, 도파민이 지나치게 적은 상태는 우울증과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도파민이 지나치게 적으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이다.
② O — 도파민 단식은 감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격렬한 운동 등의 활동을 전면 중단하는 방법이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③ O — 뇌가 감각적 자극에 적응하면 더 많은 자극을 요구한다고 했으므로, 더 강한 쾌락을 추구하게 된다는 추론은 적절하다.
④ O — 제시문은 도파민 단식이 인간의 심리적 본능과 취약점을 노린 디지털 서비스 이용 방식에 대한 성찰에서 출발했다고 했으므로 적절한 추론이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제시문에 함께 제시된 두 대응 관계를 뒤바꾼 선지이다. '과다'와 '지나치게 적음', '조현병'과 '우울증'을 각각 정확히 연결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추론 선지의 핵심어를 제시문의 대응 표현과 일대일로 대조한다. 원인·결과, 많음·적음처럼 방향이 있는 정보는 관계가 뒤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제시문 기준으로 도파민 과다는 조현병, 지나친 부족은 우울증이다.

NoteBase

7.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재물은 비유하자면 우물이다. 우물에서 물을 퍼내면 물이 가득 차지만, 길어 내지 않으면 물이 말라 버린다. 마찬가지로 비단옷을 입지 않으므로 나라에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 없고, 그 결과로 베를 짜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조잡한 그릇을 트집 잡지 않고 물건을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기에 나라는 공장과 도공, 풀무장이가 할 일이 사라졌고, 그 결과 기술이 사라졌다. 나아가 농업은 황폐해져 농사짓는 방법이 형편없고, 상업을 박대하므로 상업 자체가 실종되었다. 사농공상 네 부류의 백성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서로를 구제할 길이 없다. 나라 안에 보물이 있어도 쓰지 않아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
>
> – 박제가, 「시장과 우물」에서 –

① 농업의 성행과 비교하여 상업의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② 상품 공급 부족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③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제 활동을 일상생활에 비유하고 있다.
④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 기술이 실종되고 있음을 분석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글에 쓰인 비유의 대상과 기능을 파악하고, 글쓴이가 비판하는 경제 현실과 그 원인을 정확히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글쓴이는 우물의 물, 비단옷, 그물 같은 일상적 소재를 경제 활동에 빗댄다. 재화는 생산하고 사용하며 유통할 때 가치가 이어지지만, 생산 기술과 상업을 천시하여 경제 활동이 멈추면 기술이 사라지고 농업까지 황폐해지며 보물도 다른 나라로 빠져나간다는 논지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농업의 성행과 비교하여'이다. 글에서는 농업이 성행한다고 하지 않고, 기술과 상업의 쇠퇴로 농업까지 황폐해졌다고 말한다. 올바르게는 생산 기술과 상업을 천시한 결과 경제 전반이 쇠퇴했음을 경고한다고 해야 한다.
② X — 틀린 표현은 '상품 공급 부족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현상'이다. 글은 상품 공급 부족에 따른 소비 감소를 설명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물건 만드는 기술과 상업을 천시하여 생산·유통이 위축되고, 쓰지 않는 보물마저 다른 나라로 흘러가는 현실을 비판한다고 해야 한다.
③ O — 우물의 물, 비단옷, 그물처럼 익숙한 일상생활의 사례를 경제 활동에 비유하여, 재화의 생산·사용·유통이 이루어져야 경제가 유지된다는 논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않아'이다. 글에서 기술 실종의 원인은 외국과의 교류 단절이 아니라 물건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은 태도이다. 올바르게는 생산 기술을 천시하여 공장과 장인의 일이 사라지고 그 결과 기술이 실종되었다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글 끝의 '다른 나라로 흘러간다'는 표현을 보고 교류 단절을 기술 소멸의 원인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쓰지 않는 재화의 국외 유출이라는 결과이고, 기술 소멸의 직접 원인은 물건 만드는 기교를 숭상하지 않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비유가 나온 글은 먼저 비유에 사용된 일상적 소재를 찾고, 그것이 설명하는 대상과 글쓴이의 결론을 연결한다. 이어 선지의 원인과 결과가 본문에 실제로 제시되었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일상적 비유는 이해를 돕고, 생산·사용·유통의 단절은 기술과 경제의 쇠퇴로 이어진다.

NoteBase

8. 다음 글에 나타나는 서술 방식은?

> 우리는 웹을 더 이상 주체적으로 서핑하지 않는다. 웹에 올라탄 이들을 특정 방향으로 휩쓰는 어떤 조류에 올라탔을 뿐이다. 그 조류의 이름은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이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그램, 트위터 같은 인터넷 사이트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읽어내고, 그것에 맞춰 특정한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끌고 간다.

① 예시
② 대조
③ 서사
④ 인용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글쓴이가 중심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어떤 서술 방식을 사용했는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예시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방식이다. 대조는 둘 이상의 대상을 견주어 차이를 드러내고, 서사는 사건의 전개를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제시하며, 인용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가져와 제시하는 방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글은 웹이 이용자를 특정 방향으로 이끄는 현상을 설명하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아마존, 인스타그램, 트위터를 구체적인 사례로 든다. 따라서 예시가 중심 서술 방식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대조'이다. 서로 다른 두 대상의 차이를 견주어 밝히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를 사례로 드는 '예시'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서사'이다. 인물의 행동이나 사건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의 작용을 구체적인 사이트를 들어 설명하는 '예시'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인용'이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출처와 함께 가져오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페이스북 등의 사례를 나열하여 설명하는 '예시'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여러 사이트 이름이 나열되었다는 점을 인용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고유 명칭의 나열은 다른 사람의 말을 가져온 것이 아니며, 일반적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사례이므로 예시에 해당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심 설명 뒤에 '가령', '예를 들어'가 생략되어도 구체적인 대상이나 사례가 이어지면 예시로 판단한다. 두 대상의 차이를 견주면 대조, 사건이 시간 순서로 전개되면 서사, 남의 말이나 글을 가져오면 인용이다.

암기 포인트

구체적 사례는 예시, 둘의 차이는 대조, 사건의 흐름은 서사, 남의 말은 인용이다.

NoteBase

9.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밀린 대금을 모두 [(가)]했다.
>
> ○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판단하기가 [(나)]스러웠다.

	(가)	(나)
①	결제	곤혹
②	결재	곤욕
③	결제	곤욕
④	결재	곤혹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음이 비슷한 '결제/결재'와 '곤혹/곤욕'의 뜻을 문맥에 맞게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결제는 대금이나 값을 주고받아 거래를 끝내는 것이고, 결재는 부하가 올린 안건을 상급자가 검토하여 승인하는 것이다.
곤혹은 곤란한 일을 당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이고, 곤욕은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을 뜻한다. 따라서 '대금을 결제하다', '판단하기가 곤혹스럽다', '곤욕을 치르다'처럼 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밀린 대금'은 돈을 지급하여 거래를 마치는 대상이므로 '결제했다'가 맞고, 어떻게 처리할지 몰라 난처한 상태는 '곤혹스러웠다'가 맞다.
② X — '결재'와 '곤욕'이 모두 문맥에 맞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밀린 대금을 모두 결제했다', '판단하기가 곤혹스러웠다'이다.
③ X — '결제'는 맞지만 '곤욕'이 틀렸다. 판단하기 어려워 난처했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곤혹스러웠다'이다.
④ X — '곤혹'은 맞지만 '결재'가 틀렸다. 대금을 지급했다는 뜻이므로 올바르게는 '결제했다'이다.

오답 포인트

'결제'와 '결재'는 발음이 같고, '곤혹'과 '곤욕'은 형태와 뜻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특히 '대금'에는 '결제', 난처하여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에는 '곤혹스럽다'가 연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돈·대금·카드가 나오면 '결제', 서류·안건·승인이 나오면 '결재'로 판단한다. 어찌할 바를 몰라 난처하면 '곤혹스럽다', 모욕이나 힘든 일을 직접 겪으면 '곤욕을 치르다'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대금은 결제, 안건은 결재 / 난처하면 곤혹, 치르는 것은 곤욕이다.

NoteBase

10.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편의점이 동네를, 도시를, 그리고 세상을 덮고 있다.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를 따질 경우 편의점의 최초 발상지인 미국은 물론 편의점의 최대 발흥지였던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대한민국이 목하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편의점 1개당 일일 평균 방문객이 359명이라는데, 이는 하루 평균 880만 명 이상이 출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편의점이 확산되는 가운데, 웬만한 길가나 건물에서 편의점을 만나기란 파출소나 우체국 찾기보다 훨씬 쉬워졌다. 시나브로 편의점이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와 있는 것이다.
>
>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파트가 국민 주택이라면 편의점은 국민 점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편의점은 결코 단순한 점포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편의점의 시작은 분명히 소매 유통업이었지만, 그 끝이 어디일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상태다. 편의점은 일상에 필요한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주변 상권을 흡수 통일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금융이나 치안, 복지 등에 관련된 공적 영역으로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 편의점이 자임하는 문화적 기능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제 일상 대화에서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나 편의점 창업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오간다. 이처럼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편의점은 삶의 일부가 되었다.

① 편의점은 한국에서 일상에 가까운 시설이 되었다.
② 편의점은 한국에서 미국과 일본, 대만보다도 인구 대비 밀도가 높다.
③ 편의점은 한국에서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새로운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
④ 편의점은 한국에서 일상 대화에서의 화제가 될 만큼 삶의 일부가 되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제시문에 직접 제시된 편의점의 확산 정도와 기능 변화를 선지의 표현과 대조하여,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선지를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용 일치 판단은 선지의 핵심어를 제시문의 대응 문장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이 글은 편의점이 한국인의 일상에 가까운 시설이 되었고, 공적 영역과 문화적 기능으로 활동 범위를 넓혀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설명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제시문은 한국에서 편의점 찾기가 파출소나 우체국 찾기보다 쉬워졌고, 편의점이 우리 일상에 성큼 들어왔다고 했다. 따라서 편의점이 일상에 가까운 시설이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O
제시문은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에서 한국이 최초 발생지인 미국은 물론 최대 발흥지였던 일본과 대만을 제치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국의 인구 대비 편의점 밀도가 세 나라보다 높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X
틀린 부분은 '새로운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이다. 제시문은 편의점이 금융·치안·복지 등 공적 영역으로도 '적극 진출하고 있다'고 했을 뿐,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고 하지 않았다. 올바르게는 '편의점은 한국에서 공적 영역으로도 적극 진출하며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이다.

④ O
제시문은 '편의점 아르바이트', '편의점 창업'이라는 말이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며 편의점이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 했다. 따라서 편의점이 일상 대화의 화제가 될 만큼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은 '공적 영역으로의 진출'이라는 제시문의 앞부분은 그대로 가져오면서, 제시문에 없는 '진입 장벽에 부딪혔다'를 덧붙였다. 제시문의 '적극 진출하고 있다'와 방향이 반대인 표현을 끼워 넣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선지에서 대상·비교 관계·변화 방향을 나타내는 핵심어를 찾고 제시문의 대응 표현과 대조한다. 제시문에 없는 결과가 추가되거나 '확대'가 '장벽'처럼 반대 방향으로 바뀌면 내용 불일치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 일치 문제는 '제시문에 있는 말'처럼 보이는 선지보다, 뒤에 덧붙은 결과와 변화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NoteBase

11. (가) ~ (라)의 전개 순서로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가) 자기 재물을 혼자서 쓰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있는 것으로 쓰는 것이요,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것은 형체가 있는 재물을 형체가 없는 마음으로 쓰는 것이다.

(나) 그렇다면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껏 쓰면서도 닳아 없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는 남에게 베푸는 것만 한 것이 없을 테니, 이는 어째서인가?

(다) 그런데 형체가 있는 것을 형체로 쓰면 다 닳아 없어지기에 이르나, 형체가 있는 것을 마음으로 쓰면 변하거나 없어지는 법이 없다.

(라) 형체가 있는 것이 이미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니 도둑이 훔쳐갈까 염려하지도 않고, 불에 타 없어질까 걱정하지도 않으며, 소나 말에 실어 운반해야 하는 수고로움도 없다.

재물을 씀으로써 얻는 아름다운 이름은 죽고 난 뒤에도 없어지지 않고 천년토록 전해질 것이니, 천하에 이같이 큰 이익은 없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라) – (가) – (나) – (다)
④ (라) – (나) – (가) – (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속 표현과 문장 간 논리 관계를 근거로 글의 전개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가) 재물을 몸으로 쓰는 것과 마음으로 쓰는 것을 구분한다.
(다) '그런데'로 앞의 구분을 이어 받아, 몸으로 쓰면 닳지만 마음으로 쓰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차이를 밝힌다.
(나) '그렇다면'으로 (다)의 내용을 전제한 뒤, 재물을 마음껏 쓰면서도 닳지 않게 하는 방법이 남에게 베푸는 것뿐인 이유를 묻는다.
(라) 남에게 베푼 재물은 이미 다른 사람의 집에 있으므로 도난·화재·운반의 걱정이 없다는 구체적 이유를 제시한다.

왜 이 순서인가: (나)의 '그렇다면'은 (다)의 결론을 전제로 하고, (라)는 (나)의 물음에 답하는 설명이므로 (가)—(다)—(나)—(라)의 순서가 된다. 마지막 문단은 이렇게 재물을 베풀어 얻은 아름다운 이름은 오래 남는다고 전체 내용을 마무리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나)가 (다)보다 먼저 놓이면 '그렇다면'이 받아야 할 '마음으로 쓰면 변하거나 없어지는 법이 없다'는 내용이 아직 제시되지 않는다. 틀린 순서는 (가)—(나)—(다)—(라)이고,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② O — (가)의 개념 구분을 (다)가 구체화하고, 이를 전제로 (나)가 질문을 던진 뒤, (라)가 그 질문에 답한다. 접속 표현과 문답 관계가 모두 자연스럽다.

③ X — (라)는 남에게 재물을 베푸는 일을 이미 전제로 한 설명이므로, 재물을 쓰는 두 방식을 처음 제시하는 (가)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순서는 (라)—(가)—(나)—(다)이고,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④ X — (라)는 (나)의 '어째서인가?'에 대한 답이므로 (나) 바로 뒤에 와야 하며, (가)의 기본 구분보다 앞설 수 없다. 틀린 순서는 (라)—(나)—(가)—(다)이고, 올바르게는 (가)—(다)—(나)—(라)이다.

오답 포인트

'그런데'가 항상 앞내용과 반대되는 새 화제를 시작한다고 보거나, (나)의 질문을 근거 없이 먼저 두는 것이 함정이다. 이 글에서 (다)의 '그런데'는 (가)의 두 사용 방식을 이어 받아 차이를 밝히고, (나)의 '그렇다면'은 바로 그 차이를 전제로 질문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순서 문제에서는 지시어와 접속어가 받아야 할 앞내용을 먼저 찾고, 질문과 답변처럼 서로 결합하는 문장을 묶는다. 이 문제에서는 '그렇다면'의 전제가 (다)에 있고 '어째서인가?'의 답이 (라)에 있으므로 (다)—(나)—(라)의 연결이 확정된다.

암기 포인트

개념 제시 → 차이 설명 → 이유 질문 → 구체적 답변의 흐름이다.

NoteBase

12. 다음 글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미국의 법학자 선스타인에 따르면, "나는 네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집단의 의견에 동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강화하며 그곳에 안주한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거나 상호 비방만을 일삼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생산적인 논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우리 사회의 의견 스펙트럼은 지금보다 다양해질 것이다. 논쟁이 활발한 사회의 경우에는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 반면에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에서는 의견 스펙트럼의 양극단만 보일 뿐 중간층은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런 사회에서는 집단 간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는 의견이 제시되지 않고 논쟁이 없는 곳이 되기 쉽다.

① 논쟁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겠군.
② 의견 양극화가 심화되면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침묵하겠군.
③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좁다면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겠군.
④ 의견 양극화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대 의견 개진을 최소화해야 하겠군.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글의 핵심 주장과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독자의 반응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이 글은 반대 의견을 내고 논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꺼워지고, 의견 양극화와 정보의 단절이 심할수록 소수 의견이 침묵하여 논쟁이 사라진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갈등을 완화하려면 반대 의견의 개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의 표현과 생산적인 논쟁을 활성화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글에서는 자기 합리화에 몰두하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반대 의견을 내고 논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논쟁을 회피하면 자기 합리화에 빠지기 쉽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② O — 글에서는 의견 양극화와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 사회에서 공유되지 않는 정보가 많아지고 소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침묵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소수 의견이 침묵한다는 반응은 적절하다.

③ O — 글에서는 논쟁이 활발한 사회일수록 의견 스펙트럼의 중간층이 두껍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중간층이 좁다면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④ X — 틀린 부분은 '반대 의견 개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표현이다. 글은 반대 의견을 내고 기꺼이 논쟁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의견 스펙트럼이 다양해지고 양극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갈등을 완화하려면 반대 의견의 개진과 생산적인 논쟁을 활성화해야 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④는 '갈등 해소'라는 긍정적인 목적 뒤에 글의 주장과 정반대인 '반대 의견 개진의 최소화'를 붙인 선지이다. 글은 논쟁 자체가 갈등을 만든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반대 의견이 드러나지 않아 논쟁이 사라지는 상태를 문제로 본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자의 반응 문제에서는 선지의 결론만 보지 않고 글에 제시된 인과 관계와 방향을 대조한다. 이 글에서는 '반대 의견과 논쟁의 활성화 → 다양한 의견과 두꺼운 중간층', '양극화와 정보 단절 → 소수 의견의 침묵과 논쟁의 소멸'이라는 두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반대 의견의 표현과 생산적 논쟁은 중간층을 두껍게 하고, 양극화와 침묵은 중간층을 사라지게 한다.

NoteBase

13. 다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곱다**[1] 이익을 보려다 도리어 손해를 입게 되다.
○ **곱다**[2] 모양, 생김새, 행동거지 따위가 산뜻하고 아름답다.
○ **곱다**[3]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

① '곱다[1]'은 동사이고, '곱다[2]'와 '곱다[3]'은 형용사이다.
② '곱다[1]'은 규칙 용언이고 '곱다[2]'와 '곱다[3]'은 불규칙 용언이다.
③ '곱다[1]'은 '주식에 손을 대었다가 도리어 곱고 말았다.'처럼 쓸 수 있다.
④ '곱다[2]'의 반대말은 '밉다'이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형태가 같은 세 단어 '곱다'의 품사와 뜻을 구별하고, 어간의 'ㅂ'이 활용할 때 바뀌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형어는 형태는 같지만 뜻이 서로 다른 단어이다.
곱다[1]: '이익을 보려다가 도리어 손해를 입다'라는 뜻의 동사이며 규칙 활용을 한다.
곱다[2]: '모양이나 생김새 등이 산뜻하고 아름답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며, '고와, 고우니'처럼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다.
곱다[3]: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얼어 감각이 없고 움직이기 어렵다'라는 뜻의 형용사이며, '곱아, 곱으니'처럼 어간의 'ㅂ'이 유지되는 규칙 용언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곱다[1]은 손해를 입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이고, 곱다[2]와 곱다[3]은 각각 아름다운 상태와 손발이 언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이다.
② X — '곱다[2]와 곱다[3]은 불규칙 용언'이라는 부분이 틀렸다. 곱다[2]만 '고와'처럼 활용하는 ㅂ 불규칙 용언이며, 곱다[1]과 곱다[3]은 어간의 'ㅂ'이 유지되는 규칙 용언이다.
③ O — '주식에 손을 대었다가 도리어 곱고 말았다'의 '곱다'는 이익을 보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는 뜻이므로 곱다[1]의 적절한 용례이다.
④ O — 아름답고 보기 좋은 상태를 뜻하는 곱다[2]와 보기 싫거나 아름답지 않다는 뜻의 '밉다'는 반대말 관계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받침이 'ㅂ'인 용언이라고 해서 모두 ㅂ 불규칙 활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곱다[2]의 '고와'와 곱다[3]의 '곱아'를 혼동하면 ②를 맞는 설명으로 잘못 판단하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동형어의 뜻과 품사를 구별한 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나 '-으니'를 붙여 본다. 어간의 'ㅂ'이 바뀌면 불규칙 활용이고 그대로 유지되면 규칙 활용이다.

암기 포인트

아름다운 곱다[2]는 '고와'로 바뀌지만, 손발이 언 곱다[3]은 '곱아'로 활용한다.

NoteBase

14. 한자 표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정의 동화(同化)가 일어났다.

② 영희는 안정된 삶을 지향(知向)한다.

③ 철수는 자신의 능력(能力)을 개발하고 있다.

④ 두 선수가 진퇴(進退)를 거듭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문맥에 맞는 한자어의 뜻과 한자 표기가 정확히 대응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동화(同化)는 서로 다른 성질이나 상태가 같아지는 것이고, 지향(志向)은 어떤 목표나 방향을 뜻하여 나아가는 것이며, 능력(能力)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이고, 진퇴(進退)는 앞으로 나아감과 뒤로 물러남이다. 특히 지향의 '지'는 '알 지(知)'가 아니라 '뜻 지(志)'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감정이 서로 같아지거나 상대의 감정에 동조한다는 문맥이므로 동화(同化)의 표기가 옳다.
② X — '안정된 삶을 목표로 삼아 나아간다'는 뜻이므로 지향의 한자 표기를 知向으로 쓴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영희는 안정된 삶을 지향(志向)한다.'이다.
③ O — 자신의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개발한다는 뜻이므로 능력(能力)의 표기가 옳다.
④ O — 두 선수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물러나기를 반복한다는 뜻이므로 진퇴(進退)의 표기가 옳다.

오답 포인트

②의 '지향'을 발음만 보고 知向으로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목표를 향하려는 '뜻'을 나타내므로 志向으로 적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괄호 안 한자를 각각의 음이 아니라 문장 속 한자어 전체의 뜻과 대조한다. '목표나 방향을 뜻하여 나아감'이라는 의미이면 지향(志向)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지향은 목표를 향한 뜻이므로 '뜻 지(志)'를 쓴다.

NoteBase

15.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어린 아우 정대는 이제 겨우 아홉 살인데 타고난 성품이 매우 둔하였다. 언젠가 갑자기 "귀에서 '쟁쟁' 우는 소리가 난다."라고 하기에 내가 "그 소리가 무엇 같으냐?" 물었더니 "그 소리는요, 동글동글한 게 별과 같아서 눈에 보이기만 하면 주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였다.

(나) 글이 잘되고 못되고는 내게 달려 있고 비방과 칭찬은 남에게 달려 있는 것이니, 비유하자면 귀가 울리고 코를 고는 것과 같다. 한 아이가 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왜앵'하고 귀가 울자 "와!" 하고 좋아하면서 가만히 옆 동무에게 이렇게 말했다. "애, 이 소리 좀 들어봐. 내 귀에서 '왜앵'하는 소리가 난다. 피리를 부는 것 같기도 하고 생황을 부는 것 같기도 한데 소리가 동글동글한 게 꼭 별 같단다." 그 동무가 자기 귀를 갖다 대 보고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하자, 아이는 답답해 그만 소리를 지르며 남이 몰라주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① (가)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아우의 말을 전달하고 있다.
② (나)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사례로 글에 관한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③ (가)의 서술자는 이명을 앓는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있다.
④ (나)의 서술자는 이명 현상을 통해 독자의 평가는 저자의 의도와 다를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자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어떤 태도로 제시하는지, 그리고 구체적 일화가 글쓰기와 평가에 관한 생각을 어떻게 드러내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서술 태도는 서술자가 대상에 대해 드러내는 거리감과 정서적 반응을 말한다. 인물의 말을 그대로 전하는 것과 그 인물의 고통에 공감하여 슬퍼하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
비유적 일화는 구체적 경험을 통해 추상적인 생각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나)의 귀울림 일화는 자신이 느끼는 것과 남이 받아들이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의 서술자는 아우가 귀에서 나는 소리를 '둥글둥글한 별'처럼 보이고 잡을 수도 있을 듯하다고 표현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전달한다.
② O — (나)는 글의 성패는 글쓴이에게 달려 있지만 비방과 칭찬은 남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제시한 뒤, 귀울림을 겪는 아이의 일화로 그 생각을 구체화한다.
③ X — (가)에는 아우의 말을 들은 서술자가 그의 고통에 공감하거나 슬퍼하는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고통에 공감하면서 슬퍼하고 있다'이다. 올바르게는 서술자가 이명에 관한 아우의 독특한 말을 특별한 감정 표출 없이 전달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④ O — (나)는 자신에게만 들리는 귀울림을 남은 듣지 못하는 상황을 통해, 글쓴이가 의도하거나 스스로 느끼는 바와 독자가 내리는 평가가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오답 포인트

③은 아우에게 이명이 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고통'으로 확대하고, 지문에 없는 서술자의 '공감'과 '슬픔'을 덧붙인 선지이다. 인물의 상태와 서술자의 정서를 구분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술자의 태도를 묻는 선지는 감정이 직접 드러나는 말이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 지문에 인물의 말만 제시되어 있다면, 그 말의 내용만으로 서술자의 공감·슬픔까지 추론할 수 없다. 비유적 일화는 글 앞부분의 추상적 주장과 대응시켜 의미를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인물의 고통과 서술자의 슬픔은 다르며, 말의 인용만으로 공감의 정서를 단정할 수 없다.

NoteBase

16. 사자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없는 緣木求魚와 같은 일이다.

② 그의 말은 羊頭狗肉 같아서 도무지 신뢰할 수가 없다.

③ 刻舟求劍과 같은 시대착오적인 어리석음을 범하지 맙시다.

④ 亡羊之歎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사자성어의 정확한 뜻을 문장의 상황과 연결하여 쓰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緣木求魚(연목구어)는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구한다는 뜻으로,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잘못된 방법을 고집함을 이른다.
羊頭狗肉(양두구육)은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과 속이 다름을 이른다.
刻舟求劍(각주구검)은 칼을 빠뜨린 뱃전에 표시해 두었다가 그 자리에서 칼을 찾는다는 뜻으로, 변화를 모르고 낡은 기준만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이른다.
亡羊之歎(망양지탄)은 갈림길이 많아 양을 잃고 탄식한다는 뜻으로, 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 진리를 찾기 어렵거나 방침이 많아 갈피를 잡기 어려움을 이른다.
風樹之嘆(풍수지탄)은 부모에게 효도하려 할 때에는 이미 부모가 돌아가셔서 봉양할 수 없음을 한탄한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할 수 없는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이루려 한다는 상황이므로 緣木求魚(연목구어)의 뜻에 맞는다.
② O — 겉으로 내세우는 말과 실제가 달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羊頭狗肉(양두구육)의 쓰임이 적절하다.
③ O — 시대의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낡은 생각을 고집하는 어리석음을 말하므로 刻舟求劍(각주구검)의 뜻에 맞는다.
④ X — 틀린 표현은 '亡羊之歎(망양지탄)'이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는 효도하려 해도 소용없음을 한탄하는 상황에는 '風樹之嘆(풍수지탄)'이 알맞다. 올바르게는 '風樹之嘆이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후회해도 소용없다.'라고 해야 한다.

오답 포인트

④의 두 성어가 모두 '탄식'을 뜻한다는 점에 끌리기 쉽다. 그러나 亡羊之歎은 여러 갈래 때문에 길을 잃는 상황이고, 부모가 돌아가신 뒤 효도하지 못한 것을 한탄하는 성어는 風樹之嘆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한자의 겉뜻보다 문장의 핵심 상황을 먼저 잡는다. ‘불가능한 방법’은 연목구어, ‘겉과 속의 불일치’는 양두구육, ‘변화를 무시한 고집’은 각주구검, ‘부모 사후의 효도 한탄’은 풍수지탄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망양지탄은 갈림길, 풍수지탄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한탄이다.

NoteBase

17. 밑줄 친 부분의 예시로 적절한 것은?

>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닌다. 첫째,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셋째,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넷째,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① 소음이 섞여 주위가 시끄러웠다.
② 따스한 햇살이 고드름을 녹였다.
③ 친구에게 예쁜 꽃을 들려 보냈다.
④ 이 옷에 풀을 먹이면 상하기 쉽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접미사가 타동사 어간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한 예와 사동의 의미를 더한 예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피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의 동작을 당하는 의미이고, 사동은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어떤 동작을 하게 하는 의미이다.
타동사 '섞다'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으면 '섞이다'가 된다. 반면 '녹이다', '들리다', '먹이다'의 접미사는 문맥에서 모두 사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선지별 해설

① O — '섞여'는 타동사 '섞다'의 어간 '섞-'에 피동 접미사 '-이-'가 붙은 '섞이다'의 활용형이다. '소음이 섞였다'는 소음이 다른 소리에 섞이는 동작을 당한다는 피동의 의미이므로 밑줄 친 설명의 적절한 예이다.
② X — '녹였다'를 피동의 예로 보는 것이 틀리다. '녹였다'는 자동사 '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녹이다'의 활용형이며, 햇살이 고드름을 녹게 했다는 사동의 의미이다. 올바르게는 자동사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한 예이다.
③ X — '들려'를 피동의 예로 보는 것이 틀리다. 이 문맥의 '들려'는 타동사 '들다'에 사동 접미사 '-리-'가 붙어 친구가 꽃을 들게 했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올바르게는 타동사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한 예이다.
④ X — '먹이면'을 피동의 예로 보는 것이 틀리다. '먹이면'은 타동사 '먹다'에 사동 접미사 '-이-'가 붙은 '먹이다'의 활용형이며, 어떤 대상에게 풀을 먹게 한다는 의미이다. 올바르게는 타동사 어간에 접미사가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한 예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접미사 '-이-'와 '-리-'는 피동과 사동에 모두 쓰일 수 있으므로 접미사의 형태만 보고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③과 ④는 타동사에 접미사가 붙었지만 의미가 피동이 아니라 사동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접미사의 모양보다 문장의 의미를 먼저 확인한다. 주어가 동작을 당하면 피동이고, 주어가 다른 대상에게 동작을 하게 하면 사동이다. 그다음 접미사가 붙은 원래 어간이 타동사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당하면 피동, 하게 하면 사동'으로 구별한다. '섞이다'는 피동이고, '녹이다·들리다·먹이다'는 이 문맥에서 사동이다.

NoteBase

18. (가) ~ (라)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지난달 제 친구는 퇴근 후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어떻게 사고가 일어났는지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한 뇌진탕을 입어 2개월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 매년 2천여 명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심각한 정도의 두뇌 손상을 입고 고생합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 원인의 80 %가 두뇌 손상입니다. 콘크리트 지면에서는 30 cm 이하의 높이에서도 뇌진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헬멧을 착용하여 머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헬멧의 착용은 두뇌 손상의 위험을 90 % 정도 줄여 줍니다. 저는 헬멧을 쓰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거추장스럽다고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친구의 사고 후 헬멧을 쓰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하여 오토바이를 탈 때면 항상 헬멧을 착용합니다.

(라) 만약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착용한다면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를 75 %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토바이가 주는 즐거움과 편리함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안전을 위해서 헬멧을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가)는 실제 사건을 사례로 들어 청자의 주의를 끌고 있다.
② (나)는 통계 정보를 제시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있다.
③ (다)는 헬멧을 썼을 때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
④ (라)는 문제 해결 방안에 따른 청자의 이익과 청자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말하기의 각 부분에 사용된 전략이 실제 내용과 기능에 맞게 설명되었는지를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례 제시: 구체적인 실제 사건을 들어 청자의 관심을 끌고 문제를 실감하게 하는 전략이다.
통계 제시: 수치 자료로 문제의 규모와 심각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전략이다.
경험과 태도 변화 제시: 화자 자신의 인식이 어떻게 바뀌었고 어떤 행동으로 이어졌는지를 보여 주어 설득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해결 방안 제시: 문제를 줄일 방법, 그 이익, 청자에게 바라는 행동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전략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가)는 친구가 오토바이 사고로 심한 뇌진탕을 입고 2개월 동안 치료받은 실제 사건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사례로 말문을 열어 청자의 관심을 끄는 전략이라는 설명이 적절하다.
② O — (나)는 매년 약 2천여 명이 머리를 다치고, 사망 원인의 80%가 두뇌 손상이며, 콘크리트 지면에서는 30*cm* 이하에서도 뇌진탕이 생길 수 있다는 수치를 제시한다. 통계 정보로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③ X — 틀린 표현은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다'이다. (다)는 헬멧의 외관과 불편함에 대한 과거의 부정적 인식도 언급하지만, 친구의 사고 후 헬멧 착용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여 항상 착용하게 된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시한다. 올바르게는 '헬멧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벗어나 착용의 필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 긍정적 변화를 강조하고 있다'이다.
④ O — (라)는 모든 사람이 헬멧을 쓰면 신체 피해를 75% 줄일 수 있다는 청자의 이익을 제시하고, 마지막에 헬멧을 반드시 착용해 달라는 행동 요구를 분명히 밝힌다. 문제 해결 방안에 따른 이익과 요구 행동을 명확히 제시한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③에서 화자가 헬멧을 '보기에도 좋지 않고 거추장스럽다'고 여겼다는 문장만 보면 부정적인 면을 강조한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이 내용은 과거의 생각이며, 뒤이어 사고를 계기로 인식이 바뀌어 항상 헬멧을 착용한다는 현재의 태도와 실천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말하기 전략을 판단할 때는 일부 표현만 떼어 보지 않고 해당 부분의 중심 내용과 기능을 확인한다. 특히 '그렇지만', '그러나'와 같은 전환 표현 뒤에 제시된 화자의 최종 태도와 결론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사례는 관심, 통계는 심각성, 경험의 변화는 설득, 해결 방안은 이익과 행동 요구로 연결된다.

NoteBase

19. ㉠ ~ ㉤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이때 전우치가 구름 속에서 도술을 행하여 몸을 왕연희로 바꾸고 궐문을 나오니, 하인들이 마부와 말을 대령했다가 모시고 왕연희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바로 내당으로 들어가 왕연희의 부인과 말을 주고받았으나, 집안 사람 누구도 전우치인 줄 전혀 알지 못했다.
>
> 이때 진짜 왕연희가 궐에서 나와 하인을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다. 이상하게 여겨 동료의 말을 빌려 타고 집에 돌아오니 하인들이 문 앞에 있었다. 왕연희가 크게 화를 내면서 집에 와 있는 까닭을 묻자 하인들이 말하기를, "소인들이 아까 상공을 모셔왔는데 어찌 또 상공이 계십니까?" 하고 얼굴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 (중략) …
>
> 왕연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침실로 들어가니, 과연 다른 왕연희가 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왕연희가 크게 화를 내며 꾸짖어 말하기를, "㉡너는 어떤 놈이기에 감히 사대부 집에 들어와 내 부인과 말을 주고받고 있느냐?" 하고 종들에게 호령했다. "㉢저 놈을 빨리 결박하라!"
>
> 이에 전우치가 말하기를, "웬 놈이 내 얼굴을 하고 내당에 들어와 부인을 겁탈하려 하니, 이런 변이 어디 있느냐?" 하고 하인에게 호령하여, "㉣저 놈을 빨리 몰아 내쳐라."라고 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인물의 겉모습이 서로 뒤바뀐 상황에서 지시 표현 ㉠~㉤이 실제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문맥으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지시 표현의 대상은 표현 자체만 보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 사람과 앞뒤 사건의 흐름을 함께 살펴 정한다. 전우치는 도술로 왕연희의 모습이 되어 먼저 집에 들어갔고, 뒤이어 진짜 왕연희가 돌아왔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겉모습이 같더라도 실제 인물은 구별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 X
㉠ '그'는 도술로 왕연희의 모습을 하고 먼저 집에 들어간 전우치를 가리킨다.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은 전우치를 지시한다'이다.

② ㉡ X
진짜 왕연희가 집 안에서 자기 부인과 이야기하던 가짜 왕연희에게 한 말이므로, ㉡ '너'는 전우치를 가리킨다.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은 전우치를 지시한다'이다.

③ ㉢ X
㉢ '저 놈'은 바로 앞의 ㉡ '너'와 같은 인물, 곧 왕연희로 변신한 전우치를 가리킨다. 다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며, 올바르게는 '㉢은 전우치를 지시한다'이다.

④ ㉣ O
이 말을 한 사람은 왕연희의 모습을 한 전우치이다. 전우치가 '내 얼굴을 하고' 들어왔다고 지목한 ㉣ '저 놈'은 진짜 왕연희를 가리키므로, 나머지 세 표현과 지시 대상이 다르다.

오답 포인트

㉠~㉣ 주변에 모두 왕연희의 얼굴을 한 인물이 등장하므로 겉모습만 따라가면 실제 인물을 바꾸어 판단하기 쉽다. 특히 ㉣은 전우치가 왕연희 행세를 하며 진짜 왕연희를 오히려 가짜라고 몰아세우는 장면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변신·위장 여부를 정리하고, 각 대사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확인한다. 지시 표현을 화자와 청자 또는 앞 문장의 주어에 연결하면 실제 지시 대상을 안정적으로 구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은 전우치, ㉣만 진짜 왕연희이다.

NoteBase

20.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그런 생각을 하자 나는 쓴웃음이 나왔다. 동시에 무진이 가까웠다는 것이 더욱 실감되었다. 무진에 오기만 하면 내가 하는 생각이란 항상 그렇게 엉뚱한 공상들이었고 뒤죽박죽이었던 것이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않았던 엉뚱한 생각을 나는 무진에서는 아무런 부끄럼 없이, 거침없이 해내곤 했었던 것이다. 아니 무진에서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들이 나의 밖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진 뒤 나의 머릿속으로 밀고 들어오는 듯했었다.
>
>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 났어요. 어머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총회에서의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보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엣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었다.
>
>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할 때였었다. 새 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다. 오히려 무진에서의 나는 항상 처박혀 있는 상태였었다. 더러운 옷차림과 누우런 얼굴로 나는 항상 골방 안에서 뒹굴었다.
>
> — 김승옥, 「무진기행」에서 —

① '나'는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
② '나'는 무진에서 아내와의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다.
③ '나'는 어머니 산소를 벌초하기 위해 무진에 가고 있다.
④ '나'는 무진에 오기만 하면 공상에 빠지고 생각이 뒤엉켰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서술자의 생각과 무진행의 동기, 무진에서의 상태를 글에 직접 제시된 내용과 대조하여 파악하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내용 일치 문제는 선지의 주체·장소·원인·시점을 본문의 표현과 하나씩 대응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무진은 '나'가 서울에서의 실패를 피하거나 새 출발이 필요할 때 찾던 곳이며, 그곳에 가면 엉뚱한 공상과 뒤죽박죽인 생각에 빠지는 공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틀린 표현은 '전무로 근무하고 있다'이다. 아내는 '나'가 무진에서 돌아오면 대회생제약회사의 전무가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하므로, 현재 전무로 근무 중이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나는 무진에서 돌아온 뒤 전무가 될 예정으로 제시된다'이다.

② X

틀린 표현은 '무진에서 아내와의 부끄러운 기억이 있었다'이다. 아내의 권유를 받고 가기 싫어 심부름을 억지로 가는 아이처럼 입을 삐죽거린 일은 무진으로 떠나기 전의 상황이며, 무진에서 아내와 겪은 기억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나는 무진에서 부끄럽고 거침없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다'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어머니 산소를 벌초하기 위해'이다. 아내는 어머니 산소에 다녀온다는 말을 무진에 가기 위한 핑계로 제시했으며, 글에는 벌초가 목적이라는 내용이 없다. 올바르게는 '나는 아내의 권유를 받아 어머니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로 무진에 간다'이다.

④ O

첫 문단에서 '나'는 무진에 오기만 하면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던 엉뚱한 공상을 했고 생각들이 밖에서 밀려들어와 머릿속에서 제멋대로 이루어지는 듯했다고 말한다. 따라서 무진에 오면 공상에 빠지고 생각이 뒤엉켰다는 설명이 글과 일치한다.

오답 포인트

①은 '전무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현재 상태로 바꾸었고, ②는 무진으로 떠나기 전의 행동을 무진에서의 기억으로 바꾸었다. ③은 단순한 '핑계'를 실제 목적이자 구체적 행위인 '벌초'로 확대했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서 직위의 현재·미래, 사건이 일어난 장소, 행동의 실제 목적과 명목을 표시한 뒤 본문의 같은 대목과 대조한다. 본문에 없는 구체적 행위가 선지에 추가되면 내용 일치로 판단하지 않는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내용 일치는 주체·장소·시점·원인을 확인하며, ‘예정’을 ‘현재’로, ‘핑계’를 ‘목적’으로 바꾼 선지를 경계한다.

NoteBase